

2022 OPEN! VIII.

'생각전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1. 솔로몬의 허상

[마태복음 12: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심판 때를 살아가는 '세대'에 대한 언급이다.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마지막 세대를 정죄한다. 남방 여왕의 상징은 '지혜'에 갈급한 사람을 말한다. 여왕은 권력의 정점이다. 그러나 그녀가 지닌 힘과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다.

솔로몬이 주는 상징성을 보라. 힘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권력자들은 항상 지혜자를 찾는다. 권력이 지혜와 만나면 견고해진다. 권력이 하드웨어라면, 지혜는 힘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이다. 그래서 둘은 떼낼 수 없는 관계이다. 솔로몬은 그 당시 권력의 레벨 위 차원의 사람이었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찾게 되어있고,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에 영향을 받는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자.

[전도서 1:16]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열왕기상 4:30-34]

30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31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32 그는 삼천 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천다섯 편의 노래를 지었고,

33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34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 왔다..

* 솔로몬의 허상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다. 그 지혜 앞에 세상 권력이 무릎을 꿇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마지막 형상이다. (왕들이 흠모하는 자이다). 권력의 정점 / 지혜의 정점 (이성과 지성) / 부의 정점 / 쾌락의 정점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솔로몬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런 솔로몬의 형상이 왜 허상인가? 솔로몬의 고백에 나와있다.

2. 솔로몬의 허상이 헛된 이유

[전도서 1:2-3]

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땅의 모든 욕망의 정점에 있는 솔로몬이 고백한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실체 없는 허상이라는 것이다. 3절에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한다. 수고는 땀이며, 땀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의미가 된다. 땀과 수고는 보람이다. 그런데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본질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했다.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수고와 땀이 무슨 의미인데?" 라는 질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묻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을까? 성경에 그 답이 명확히 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소유가 솔로몬의 존재에 만족을 주지 못한 이유는 솔로몬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명확한 이유이다. 솔로몬은 세상 남방 여왕이 찾는 위대한 존재였지만, 솔로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때에 솔로몬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생각 전쟁 - 죄인의 생각 - 혼미한 생각 (영의 생각 - 육의 생각)

[고린도후서 4:3-4]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악한 영이 있다. 우리의 눈을 멀게하는 악한 영이 있다. 세상의 신이 있다. 명심하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을 (마음이 생각이다) 혼미하게 한다. 눈멀게 한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내 생각 안에 세상 신이 거짓으로 비추인 혼미한 형상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마음이 부패한 세대 -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부패하다.

[디모데전서 6:5]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5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새번역)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게 된다. 부패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혼미하게 된 이유의 원인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허상을 쫓는 욕망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종교 -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함.

(종교의 정의는 위선이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패하다 - 회칠한 무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무서운 세대이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 모양만 있는 종교인의 증가이다.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 필적한 사탄의 지혜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사탄이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지혜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4. 복음으로 눈을 뜨게 하라 -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예수를 받아들이는 복음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여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예수님의 통치가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y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e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제 솔로몬의 경계선에서 나와야 한다. 솔로몬의 마지막 결말은 허무함이다. 명심하라. 예수 말고 답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멸망시킬 것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선교'는 마지막 사탄의 영에 의해 눈이 가려진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묶여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결정하고, 회개하고, 움직이라'